

중국 황토고원의 동굴집 야오둥(窯洞)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

한지은*

Politics of Representation over *Yaodong* (Cave-dwelling) in Loess Plateau, China

Ji-Eun Han*

요약 : 중국 황토고원의 동굴집 야오둥(窯洞)은 수천 년간 지역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자 대표적인 민가 경관이다. 본 연구는 야오둥에 대한 기존의 형태학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재현의 관점에서 야오둥 경관을 검토했다. 연구 지역인 산시성(陝西省) 북부의 옌안(延安)은 황토고원(黃土高原)에서도 야오둥이 집중된 지역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황토고원과 야오둥의 재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황토고원의 야오둥은 생태주의 친환경 건축, 혁명문화유산, 농촌 빈곤, 정치적 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재현의 변화는 집단적 인식과 관념을 바꿀 뿐 아니라, 홍색관광, 빈곤타파 및 농촌개발, 애국주의 교육, 생태보전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통해 실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요어 : 야오둥(동굴집), 옌안, 재현의 정치, 홍색관광, 황토고원

Abstract : *Yaodong* (Cave-dwelling) is a ecological adaptation to the local environment on loess plateau in China for thousands of years.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social and cultural representations of *Yaodong* landscape instead of morphological approach. Yen-an in northern Shaanxi in which traditional *Yaodong* concentrated on loess plateau is a critical place of state formation in the Communist China. Various symbols and meanings of *Yaodong* such as ecological eco-friendly architecture, revolution heritage, rural poverty, and political school are being founded out in contemporary China. These various representations change ideas and perceptions of *Yaodong* and then these transform real regions with policies and practices such as Red Tourism, poverty reduction and rural development, patriotism education, and ecological preservation.

Key Words : *Yaodong* (Cave-dwelling), Yen-an, Politics of representation, Red Tourism, Loess Plateau

I. 들어가며

한국인에게는 황사(黃砂)의 발원지로 잘 알려진 중국 황토고원(黃土高原)은 황허(黃河) 중상류의 산시성(陝西省)¹⁾을 중심으로, 허난성(河南省), 산시성(山西省), 간쑤성(甘肅省)에 걸쳐 있는 약 40만 km²에 달하는 넓은 고원 지대이다. 황토고원은 중국에서 '황토(黃土)'라 부르는 미세한 입자의 풍화 축적토인 피스(loess)로 덮여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파낼 수 있는 토양 특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 인간의 거주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 동굴집인 '야오둥(窯洞)'을 짓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지리학계에서 황토고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황토고원의 성인(成因)과 지형적 특성, 한반도에서 황토고원에서 기원하는 피스층을 대상으로 하는 토양 및 고기후 연구 등 자연지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손명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nyhan@knue.ac.kr)

원, 2005; 박충선 등, 2007:35-57). 그러나 황토고원 주민들이 수천 년간 환경에 적응한 결과인 ‘민가(民家)’로서 황토고원의 동굴집인 야오둥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연구(Yoon, 1990; 최영준, 2003)가 수행되면서 황토고원과 야오둥에 대한 이해가 크게 제고되었다. 이 연구들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황토고원 지역에서 야오둥의 지리적 분포와 입지, 야오둥의 형태와 건축방법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원형적 거주 공간으로 야오둥에 반영된 풍수(風水) 사상 및 환경에 대한 관념들을 검토함으로써 지리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공헌했다. 다만 이들 연구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현재와는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과 이후 중국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주로 야오둥의 입지와 분포, 건축 형태 등 형태학적 특징에 집중함으로써, 야오둥 경관을 당대의 사회문화적 ‘재현(representation)’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황토고원과 야오둥에 대한 기존의 문화지리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경관에 대한 형태학적 접근을 넘어 재현의 측면에서 야오둥 경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지역인 산시성 북부의 옌안(延安)은 황토고원에서도 야오둥이 집중된 지역이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오늘날 황토고원과 야오둥 경관을 둘러싼 재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최적의 장소이다.

황토고원의 야오둥에 대한 재현의 변화는 집단적 인식과 관념을 바꾸고, 중국의 ‘농촌다움’, 나아가 ‘중국다움’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구성한다. 야오둥을 둘러싼 재현은 관광 및 농촌 개발, 국가주의 및 생태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실천들에 담론과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현재 중국에서 황토고원의 야오둥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2015년 8월 중국 산시성 옌안의 청량산(清凉山), 자오위안(棗園) 등 야오둥 밀집 지역에 현지답사를 수행하여 야오둥 경관이 관광 및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 담론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어 홍색관광(Red Tourism), 문화유산, 빈곤 농촌 개발 등과 관련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문건을 검토하여 황토고원과 야오둥에 관한 재현의 변화를 야기한 사회적·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특히 시진핑

이 집권한 2013년 이후 옌안의 야오둥을 주제로 하는 문학 및 미술작품, 신문기사, TV다큐멘터리, 인터뷰기록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하여 오늘날 중국에서 황토고원과 야오둥의 재현 양상을 분석했다.

II. 야오둥의 형태학: 황토고원 야오둥의 생태학적 적응

최영준(2003:2)에 따르면 야오둥 주거가 세계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77년 리히트호펜(F. F. von Richthofen)의 『중국: 여행의 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연구(China: Ergebnisse eigener Reisen und darauf gegründeter Studien)』에서다. 리히트호펜은 7차에 걸친 중국 답사를 통해 ‘실크로드(Silk Road)’라는 용어를 창안하고, 간쑤성(甘肅省)의 치렌산맥(祁連山脈)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리히트호펜산맥’이라고 명명하였을 뿐 아니라(이강원, 2003:722), 황토고원 일대의 야오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1920년대 산시성 야오둥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지리 연구가 확인될 뿐이며(Fuller and Clapp, 1924), 1980년대 이후야 황토고원과 야오둥 주거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중국의 황토지대는 제4기에 몽고 및 타클라마칸 사막 등 광대한 건조지역에서 풍화된 퇴사가 편서풍에 실려와 퇴적하여 형성되었다. 퇴적된 퇴스는 상당히 두터워서 보통 100m 이상이며, 180m에 달하는 곳도 있다(陳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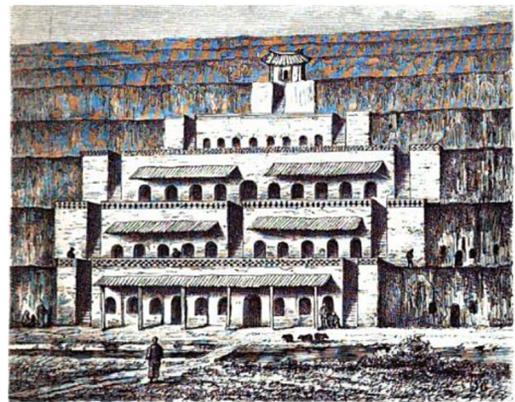


그림 1. 산시성 야오둥 입구

출처 : Richthofen, 1877:73.

祥, 1985:136-141). 황토지대의 토양 특성에 관해 리히트 호펜은 중국의 ‘황토(黃土)’와 독일 라인(Rhine Valley)의 ‘뢰스(Löss)’는 다공질이고 두꺼운 층을 이루지만 층리를 이루지 않고, 수직절리가 잘 발달하고 절벽을 이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Liu, 1985; 박충선 등, 2007:30-31에서 재인용).

황토고원은 중생대에 형성된 몇 개의 대규모 분지 위에 발달한 지형으로 지각변동과정에서 황토 퇴적지가 융기하여 고원을 이룬 것이다(최영준, 2003:4). 기후적으로는 반건조와 반습윤 지대에 걸쳐 있는데, 연 강수량은 작지만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고 이러한 현상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무수한 계곡이 발달했다. 따라서 황토고원은 골짜기가 패어 있고 침식이 심한 황토구릉과 넓은 평탄면을 이루는 황토평원을 지형적 특징으로 한다(손세관, 2001:139-140).

황토고원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와 지형 조건에 따라 기후 조건이 상이하지만, 내륙 고원지대의 특성 상 기온의 계절적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단열효과가 높은 야오둥은 여름철의 열기를 막고 겨울의 외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커서, 일반적으로 야오둥의 실내 온도는 겨울에는 지상의 건물들보다 9°C 높고, 여름에는 4.7°C 낮다(Liu et al., 2011:8530).

황토고원의 토양 특성과 기후 조건을 검토하면서 윤흥기는 야오둥 주거를 황토고원 주민들의 성공적인 ‘생태학적 적응(ecological adaptation)’의 결과로 평가했다(Yoon, 1990:95). 황토고원 중에서도 야오둥이 집중된 산시성은 연중 극단적인 기온차가 나타나는데, 뤼스는

바위보다 단열효과가 커서 야오둥의 벽면은 돌로 된 12m의 벽에 버금가는 단열효과를 낸다고 한다. 즉, 야오둥은 황토고원 지역의 혹한의 긴 겨울과 극심한 열기에 대응한 생태학적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황토고원의 뤼스는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파낼 수 있지만, 이 지역에는 건축 재료로 사용할만한 튼튼한 목재가 부족하다.²⁾ 따라서 이러한 토양 및 식생 조건 하에서 보통의 농기구만으로도 쉽게 작업 가능한 뤼스를 활용한 야오둥 건축은 황토고원의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생태학적 적응 사례라 할 수 있다(Yoon, 1990: 100-101).

야오둥은 형태나 재료, 건축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크게 황토고원의 자연절벽에 동굴을 파는 동굴형(excavated cave-dwelling)과 지상의 평지나 반지하에 동굴집을 짓는 독립형(free-standing cave-dwelling)으로 나뉜다(Yoon, 1990:98).³⁾ 최영준(2003)은 동굴형을 ‘황토야오둥(黃土窯洞)’으로, 독립형을 ‘투피공야오둥(土坯拱窯洞)’으로 칭하면서, 원시적 혈거(穴居) 주거가 지하에 건설되는 황토야오둥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구조상으로는 야오둥이지만 지상에 짓는 투피공 방식으로 진화한 일련의 변화 과정으로 파악했다(최영준, 2003:12).

황토고원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야오둥의 형태는 동굴형으로, 이는 다시 절벽면에 굴을 파서 만드는 ‘고애식(靠崖式, 또는 靠山式)’과 평탄한 대지에 수직으로 네모난 구멍을 파 지하 중정(中庭)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그 사방으로 굴을 파는 ‘하침식(下沈式)’으로 나뉜다. 야오둥은 보통 넓은 하곡(河谷)을 따라 수직의 황토벽이 발달한 곳이나 평탄한 황토원에 입지하는데, 넓은 곡저평야나 하안단구 지역에는 황토절벽의 벽면을 파낸 고애식이, 평평한 황토원의 풍수상 길지(吉地)에는 하침식 야오둥이 주로 지어졌다(손세관, 2001; 최영준, 2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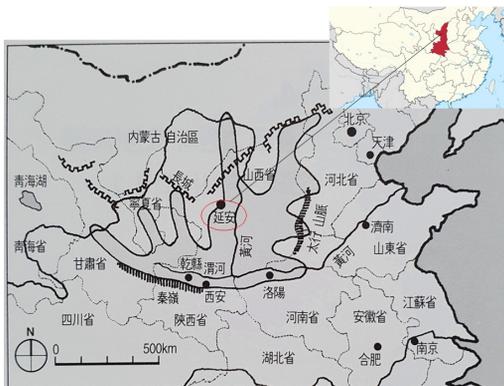


그림 2. 황토고원의 야오둥 밀집 지역(음영)과 산시성 연안 출처 : 손세관, 2001:136; Wikipedia, “Shaan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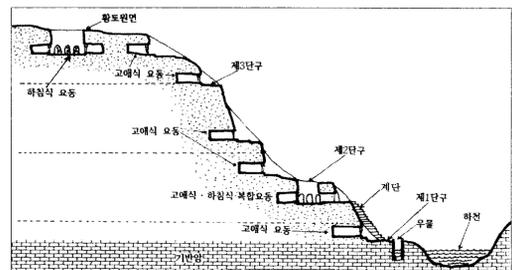


그림 3. 황토고원 단구면과 야오둥 유형 출처 : 최영준, 2003:13.

여러 개의 단구면이 있는 큰 하천 주변에는 단구면을 따라 벌집 모양으로 여러 층의 야오둥이 지어진 경우도 많지만, 산시성 옌안 지역의 경우에는 계곡이 좁고 단구면이 발달하지 않아 좁은 하천을 따라 고애식 야오둥이 주로 건설되었다(최영준, 2003:12). 산시성 야오둥에 관한 초기 연구인 Fuller and Clapp(1924)에 따르면 산시성 야오둥은 보통 길이 10m, 높이 5m로, 폭은 해당 지역의 퇴스의 강도에 따라 다양하며, 붕괴 위험으로 1층 이상의 높이로는 짓지 않았다(Fuller and Clapp, 1924: 216-217).

퇴스는 황토고원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가공이 용이한 건축 재료이지만, 동시에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재료이기도 하다.⁴⁾ 따라서 강우량과 습기는 야오둥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먼저, 야오둥을 짓기에 최적의 시기는 우기 직후로 토양이 여전히 습하지만 더 이상 젖어있지는 않을 때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황토고원은 농기구나 조약한 삽만으로도 형태를 만들기가 용이하다(Fuller and Clapp, 1924:218). 폭 3m, 깊이 10m의 굴을 하나 파는 데는 보통 40여일이 걸리는데, 목재로 만든 틀의 중앙에 종석(宗石)을 놓고 벽돌이나 돌을 아치(arch) 형태로 쌓아 입구를 만들고, 아치의 천정 부분에서부터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반원형의 굴을 만든다(최영준, 2003:11). 따라서 야오둥의 대표적 경관 요소인 아치형의 입구와 반원형의 내부 공간은 황토고원의 토양 조건 하에서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야오둥의 또 다른 생태학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야오둥 주거가 황토고원 주민들이 오랜 시간 지역의 환경에 생태학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풍수(風水)’이다. 황토고원은 황허로 대표되는 중화문화의 발상지로 여겨지며(向遠林 等, 2019:82), 그 중에서도 풍수는 진(秦), 한(漢) 대에 황토고원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한족(漢族)의 이주와 함께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특히 야오둥의 입지가 대부분 남향으로 경사지를 등지고 입구를 전면에 두는 형태인 점이나(Yoon, 1990:96), 야오둥 건설에 이상적인 토양이 오늘날까지 풍수론에서 명당의 조건으로 치는 콩가루를 뿜아 놓은 것과 같은 부드럽고 잘 마른 황토라는 사실 등은 풍수가 황토고원의 주민들이 야오둥을 짓던 기술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준다(윤홍기, 2011:62).

야오둥 건축을 황토고원의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적응의 결과로 파악하는 관점은 오늘날 전통적 민가인 야

오둥을 친환경적이고 대안적인 생태건축으로 재평가하거나, 심지어 현대 건축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친환경 야오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Liu *et al.*, 2011; 牛世紅, 2015; Frenda, 2015). 지하공간을 사용하여 농지를 점유하지 않는 점, 남향의 배치를 통해 일조량을 확보하는 점, 단열의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점, 퇴스는 지역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철거 후에도 폐기물이 거의 남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건축 재료라는 점, 지하에 빗물을 모아 재사용하는 물 절약 방식⁶⁾ 등은 현대적 관점에서 야오둥 건축의 중요한 생태적 가치로 평가된다(Liu *et al.*, 2011:8530-8531).

이처럼 전통 촌락 경관이었던 야오둥이 친환경 생태건축으로서 재의미화되는 과정은 중국에서 황토고원과 야오둥의 재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도 볼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오늘날 황토고원과 야오둥의 다양한 재현 양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재현의 변화가 야기 한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III. 황토고원의 야오둥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

1. 야오둥과 재현의 정치

자연경관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의 결과를 문화 경관(cultural landscape)라고 보았던 Sauer(1925)와 달리 Duncan(1990) 등 신문화지리학자는 경관을 단순한 물질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체계를 통해 소통·재생산되는 ‘의미 체계(signification system)’로 이해한다. 의미 체계로서 경관에 대한 이미지와 그에 대한 시각들은 사회의 지배적 믿음과 가치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사회적 구성 안에서 권력관계는 특정 담론을 매개로 소통되거나, 때로는 저항되고, 협상가능하며, 이는 특정 영역의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내러티브, 개념,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경쟁 담론으로서 일종의 ‘담론장(discursive field)’을 구성한다(Duncan, 1990:16).

따라서 경관을 현실의 재현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사회적 의미와 담론 등이 어떻게 경관에 대한 해석과 의미 유통을 매개로 형성되고 변형되는가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경관은 주도적 믿음과 사회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론장의 분석을 통해 경관의 상징적 의미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는 방식, 나아가 권력관계의 반영으로서 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한지은, 2013:139).

앞에서 보았듯이 야오둥은 중국의 대표적 촌락 경관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형태적 차이를 통해 황토고원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촌락은 더 이상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재현(social representation)'이다. 촌락은 식량 생산이나 환경 유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학작품이나 TV,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또는 관광과 여행 경험을 통해 소비되는 재현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촌락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떠한 장소나 대상, 전통과 관습 등이 '촌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권상철 등 역, 2014:13-17).

'농촌', '촌락', '시골' 등 무엇으로 불리든 촌락은 야생성이나 목가적 전원으로서 찬양되어 온 동시에, 고립되어 있고 저발전 상태이기 때문에 근대화가 필요한 장소로 폄하되곤 했다. 대표적으로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16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농촌에 대해 "평화, 순수, 소박한 미덕 등이 깃든 자연적 생활방식"이라는 관념이 축적되었지만, 동시에 도시와 비교해 "후진적이며 무지하고, 편협한 장소"로 재현하는 시도가 지속되었음을 주장했다(이현석 역, 2013:15-16).

따라서 중국의 농촌 또한 사람들이 농촌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상징과 같은 사회적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중국에서 '농촌(향토)'은 때로는 회귀해야 할 도덕적이고 이상화된 장소로, 때로는 빈곤과 지역격차의 상징으로서 구조되어야 할 문제적 장소로 재현되어 왔다. 신중국의 성립 이후에도 농촌은 '농업협작화(農業合作化)'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으로 그려지거나, 자본주의에 위협받는 농촌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촌락에 대한 재현의 변화는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를 추구한 문화대혁명과 80년대 향토문화의 열풍, 그리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삼농문제(三農問題)'와 관련한 최근의 담론과 서사들에서도 계속되었다(한지은, 2010:109).

오랫동안 황토고원의 대표적 촌락 경관으로 형태학적 분석이 시도되었던 동굴집 야오둥은 이러한 사회적 재현으로서 중국 농촌을 이해하는 핵심어가 될 수 있다.

황토고원의 동굴집을 둘러싼 재현의 변화를 추적하는 이유는 야오둥을 둘러싼 재현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농촌다움', 나아가 '중국다움'에 대한 집단적 인식과 관념을 바꿀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실천의 담론과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지역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2. 혁명문화유산이 된 야오둥과 홍색관광

야오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사실 중 하나는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야오둥에 거주하는 인구가 최대 1억 명에서 최소 4천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鈴木喜, 1999:149; 최영준, 2003:8에서 재인용). 이는 야오둥 거주민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1990년대 말 작성된 연구 자료가 재인용된 것이지만, 개혁개방 이후까지도 야오둥이 황토고원의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 중 하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야오둥의 주요 분포 지역은 황토고원의 중심부인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허난성, 간쑤성을 중심으로 허베이성(河北), 닝샤(寧夏), 내이멍구(內蒙古) 등이다.⁷⁾ 황토고원에 야오둥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소 4천년이 넘지만, 이처럼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화북지방에서 이어진 회족(回族)의 반란과 한발과 기근으로 인해 화북평야의 주민들이 상당수 황토고원으로 들어오면서 야오둥 취락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최영준, 2003:8).

황토고원 중에서도 보통 '산베이(陝北)'라 불리는 산시성 북부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야오둥 밀집 지역이다. 해발 800~1,300m의 고원 지역인 산베이는 2000년대까지도 전체 주민의 반 이상이 야오둥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Knapp, 2000; 최영준, 2003:9). 특히 산베이의 옌안 일대는 『송사(宋史)』 「종세형전(種世衡傳)」에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데, 깊이가 150척(尺)에 달해야 비로소 암석층에 닿았다"고 기록될 만큼 두터운 퇴스층으로 덮인 황토지역이다(陳正祥, 1985:141). 그러나 오늘날 산베이 지역의 야오둥이 유명해진 것은 황토 때문이 아니라 산베이의 중심 도시인 옌안이 중국 현대사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옌안은 국공합작 결렬 후 국민당군의 대대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마오쩌둥(毛澤東)의 홍군이 감행했던 368일간의 긴 행군, 일명 '대장정(大長征)'의 종착지였으며, 항일운동과 혁명의 본거지가 된 이른바 중국의 '혁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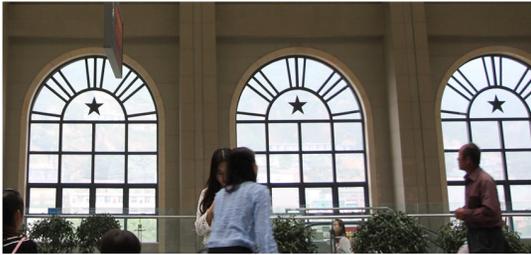


그림 4. 혁명성지 옌안의 야오둥을 형상화한 옌안역(좌)과 옌안칭량산신문출판혁명기념관(우)

출처 : 2015년 8월 저자 촬영.

지(革命聖地)이다. 1937~1948년 옌안에는 마오쩌둥, 저우언라이(周恩來) 등 공산당 지도부의 주거지 뿐 아니라, 공산당사, 군사사령부, 병원, 학교, 신문사 등 각종 기관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야오둥 건축이었다. 현재에도 옌안시구 내에만 총 168곳의 이른바 ‘혁명유적지革命遺址’가 남아있으며 이들 상당수가 황토로 만들어진 야오둥이다(牛世紅, 2015:66). 이처럼 신중국 성립 후 옌안이 중국의 ‘혁명성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면서, 옌안의 야오둥은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자연’ 경관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혁명성지 옌안의 야오둥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이른바 ‘홍색관광(紅色旅遊)’의 등장으로 그 가치가 더욱 커졌다. 홍색관광이란 사회주의 혁명영웅들의 탄생지나 옛집, 각종 역사기념관, 대장정의 경로, 국공내전과 항일전쟁 전적지 등을 찾아 사회주의 혁명의 영광과 중국공산당의 업적을 되새기고 학습하는 활동을 주제로 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유산관광을 말한다(박충환, 2011:119).

홍색관광은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한 도시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기나 마오쩌둥 시기의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혁명의 영광과 공산당의 업적을 현재의 풍요와 연결시키고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종의 ‘혁명 노스텔지아’가 이 새로운 여행의 동기가 된 것이다(박충환, 2011:138; Lin, 2015:329).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홍색관광은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 홍색관광은 이후 국가 주도적으로, 특히 공산당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하



그림 5. 마오쩌둥이 살던 야오둥의 홍색관광객

출처 : 2015년 8월 저자 촬영.

향식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며, 일종의 국가적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Li et al., 2010:106). 천안문사태 이후 199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 본격화된 애국주의 교육과 더불어(한지은, 2015:6), 홍색관광이 중국 국가주의적 정체성을 구성을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관련 유적지는 이른바 ‘혁명문화유산(革命文物)’으로 격상되었다. 문화유산으로의 지정 이유는 “애국의 열정을 촉발하고, 민족정신의 뿌리 깊은 자양분을 일깨우는 것이며, 혁명 전통을 드높이고 중화문화의 중요한 물질적 형태를 전승하는 것이다. 혁명문화유산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기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國家文物局, 2016年 7月 1日字).



그림 6. 연안혁명기념관의 마오쩌둥과 야오둥

출처 : 2015년 8월 저자 촬영.

한편 2004년 국무원(國務院)은 <2004-2010년 전국홍색관광발전계획요강(全國紅色旅游發展規劃要綱)>을 통해 기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홍색관광의 개발을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함을 발표하였고, 국가관광국(國家旅游局, 현 文化和旅游部)은 이듬해인 2005년을 이른바 ‘홍색관광의 해’로 지정하였다(박충환 2011:124). 중국의 홍색관광산업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여, 2017년 홍색관광 총수입은 2,600억 위안(한화 42조 4,600억 원), 관광객 수는 내국인 관광객 총수의 26.39%에 달하는 13억 2,400만 명에 달했다(前瞻產業研究院, “2019年中國紅色旅游行業市場現狀及發展前景分析豫測2020年旅游收入將近4,000億”).

2016년 말까지 전국에 총 300곳의 ‘홍색관광경전관광지(紅色旅游經典景區)’가 지정되었는데, 이는 내륙인 산시성의 현급시(縣級市)로 개혁개방 이후 쇠퇴하고 있던 연안시의 야오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연안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가 있던 자오위안(棗園),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팔로군이 주둔하던 왕자핑(王家坪) 등 100여 곳의 사회주의 혁명 관련 유적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황토고원의 야오둥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야오둥 주거의 본질적 문제들, 즉, 나쁜 채광, 높은 습도, 환기의 어려움 등은 오히려 혁명문화유산으로서 야오둥이 불러일으키는 혁명 노스텔지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오쩌둥과 공산당 주역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했다는 영웅적 서사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안과 관련된 마오쩌둥의 일화는 대부분 야오둥과 관련되어 있으며, 회화나 사진 등의 다양한 도상으로 만들어져 반복적으로 유포

되었다. “연안의 야오둥은 가장 혁명적”이라는 마오쩌둥의 발언은 혁명성지 연안의 혁명문화유산 야오둥을 수식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 되었다.⁹⁾

3. 황토고원 빈곤 농촌의 야오둥

변화한 수도에서 갑자기 황토고원의 산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 1969년 1월 산베이로 올 때,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황토고원에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산 깊고 궁벽한 땅(窮山僻壤)’이었죠. 눈앞의 풍경을 보며 혁명성지라거나 우리의 미래와 연결시킬 수는 없었고, 같은 차에 탄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닌지 운전사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생산대에 도착하고서 농민들의 빈궁함을 보니 의아하게 여겨졌어요. 신중국이 성립된 지 이미 십여 년이 지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곤궁한 지역과 농민이 있는 걸까?¹⁰⁾

(中央黨校採訪實錄編輯室, 2017:11)

마오쩌둥이 연안 시기를 거쳐 신중국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농민과 농촌이었다. 농촌·농민을 근간으로 성립된 사회주의 신체제에서 과거 체제와 차별적인 새로운 재현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새로운 농촌과 농민의 재현은 정치화되고 이상화되었다. 더욱이 1942년 마오쩌둥이 ‘연안문예좌담회(延安文藝座談會)’에서 “문예는 노동자, 농민, 군인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文藝爲工農兵服務)”는 유명한 발언을 한 이후, 문학과 미술 등에서 농민은 사회주의 중국의 핵심 주제로, 농촌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발

현되는 핵심 장소로 재현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농촌의 빈곤이 현실 중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러한 이상화된 재현은 점차 줄어들었으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1980년대 중반부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재현이 등장하게 된다. 급속한 서구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른바 ‘뿌리찾기(尋根)’라는 명목 하에 현실과는 괴리된 낭만적이고 회고적인 재현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낭만적 재현은 ‘서북풍(西北風)’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서부 내륙의 농촌 지역을 주요 배경으로 한다(鄒躍進, 2012:74-75; 이영일, 2020:410에서 재인용). 중국의 서북 지방은 산시성 이외에도, 간쑤와 칭하이(淸海), 신장, 닝샤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말하지만, 서북풍이라는 새로운 농촌 재현의 중심에는 중화문화의 시원지이자 사회주의 혁명의 근거지인 황토고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는 황토고원의 중심도시인 혁명성지 옌안과 혁명의 주체인 농민의 살림집으로서의 야오둥의 재현에 낭만주의와 노스텔지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적 수사에서 농촌과 농민의 중요성이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국가 정책에서 중국 농촌·농민은 도시·도시민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윈테진(溫鐵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에서나 중국에서 이른바 ‘삼농(농민, 농촌, 농업)’은 도시의 공업화와 시장화를 위해 잉여를 제공하는 일종의 ‘제3세계’였다고 주장한다(조형진 역, 2020:64). 빈곤한 농업 국가였던 중국은 1950년대부터 공산품과 농산품 간의 협상가격차(剪刀差)를 추진하고, 농촌에 집중된 대량의 잉여 노동력을 대규모로 기본건설에 투입함으로써 20여년 만에 국가공업화를 위한 원시적 축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농촌은 ‘농민공(農民工)’이라 불리는 저임금 노동력을 도시에 제공하였고, 농촌의 토지는 도시화 및 산업화를 명목으로 저가로 수용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도시에 희생되어 왔다는 것이다(조형진 역, 2020:57-64). 중국의 전례 없는 산업화는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탈취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오늘날 중국의 내륙과 연해, 도시와 농촌 간의 극심한 격차와 농촌의 빈곤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빈곤 문제나 대책은 보통 농촌 문제나 농촌 개발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1994년 8천만에 달하는 농촌 빈곤 인구의 생계문제를 7년(1994-2000년)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국가 주도의 최초의

빈곤 정책인 <국가87빈곤타파계획(國家八七扶貧攻堅計劃)>의 주요 내용 또한 특산물 발굴, 농업 이외의 겸업 유도 등 농촌 정책이었다. 2013년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작한 빈곤지원책인 이른바 ‘정준부빈(精準扶貧)’¹¹⁾에서도 농촌을 빈곤의 장소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다. 기존의 특산물 개발, 잉여 농업 인구의 비농업화이외에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재건축을 통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거나, 관광이나 생태 환경 등을 활용한 농촌 관광 등 소득 증대 방안이 더해졌다(김도경, 2017:247-248).

신중국 성립 이후 정부는 늘 농촌의 빈곤 타파를 정책의 최우선에 놓겠다고 했지만, 실제 농촌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갔고, 이는 혁명성지인 산베이 옌안 지역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2015년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년 빈곤 완화 및 발전 고도화 포럼(減貧與發展高層論壇)’에서 시진핑은 다음의 발언을 했다. “지난 세기 60년대 말, 16세대 안된 저는 베이징에서 산베이의 작은 농촌 마을로 가 농민이 되어 7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중국 농촌의 빈곤 상황은 저에게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촌민들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노동하던 저의 목적은 바로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거의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人民網, 2015년 10월 16日字).

이처럼 산베이의 농촌 지역은 개혁개방의 성과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 중국의 대표적 빈곤 지역이다. 따라서 혁명문화유산이 되지 못한 황토고원의 동굴집은 도농간 격차와 내륙 농촌 빈곤의 상징이 되었다. 사실 야오둥에 산다는 것은 채광과 통풍, 습도, 먼지 등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해야할 뿐 아니라 붕괴와 같은 재난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농민공이 되어 도시로 나가거나 소득이 있는 농민의 상당수가 대대로 살던 야오둥 거주를 기피하면서 황토고원 야오둥의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관리 소홀로 붕괴되기도 했다. 더욱이 불편함과 위험 속에도 여전히 야오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거 사회주의 중국의 핵심 주체였으나 이제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빈곤 농민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농촌·농민 빈곤의 상징이 된 야오둥의 철거와 야오둥 주민의 이주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야오둥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 옌안에서는 2011년 말부터



그림 7. 노동자 숙소로 사용 중인 야오둥
출처 : 2015년 8월 저자 촬영.

도심 내부의 과밀 해소와 20만 명에 달하는 산지 주민들의 주거안정(安居)을 명목으로, 이른바 ‘중심성 해소 및 외연 확장, 토지평탄화(中疏外擴, 上山建城)’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안 도심 내 야오둥 거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계획되었다(新浪(Sina News), 2013년 12월 6일자).

연안에서는 2017년까지 15만 명의 이주가 완료되었고, 2018년에만 5만 7천호, 21만 5천명의 주민이 이주가 계획되었다. 연안시는 17곳의 판자촌(棚戶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이들 구역 내 야오둥에 대해 산사태 및 붕괴 위험, 주거 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전면 철거와 재개발을 시작했다. 수대에 걸쳐 연안의 야오둥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철거 전 마지막으로 야오둥에서 보낸 춘절(春節) 풍경을 그린 신문기사에서 70세의 주민은 다음과 같이 야오둥에 대한 회상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야오둥을 짓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드나들기도 편리해서, 식구들 모두 이미 익숙해졌어요. 물론 안전과 편리함은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요.”(中國新聞社, 2018년 2월 17일자).

야오둥이 농촌 빈곤의 상징으로 재현되면서 야오둥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또한 빈곤 농촌의 지원책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혁명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야오둥의 경우에는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야오둥의 형태적 특징과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건축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앙서기처가 있었던 연안의 자오위안촌에는 총 182개의 새로운 야오둥이 건

설되었다(Liu *et al.*, 2011:8532). 자오위안촌의 신축 야오둥은 무엇보다 보통 농민의 살림집으로서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인 야오둥의 특징을 강조한다. 이에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큰 창문과 자연 환기 방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야오둥의 고질적 문제였던 습기와 환기를 개선하였다. 그밖에 2층의 야오둥을 건설해 협소한 야오둥의 주거 면적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필름 등 새로운 건축 재료를 이용하여 붕괴 위험을 줄였다(Liu *et al.*, 2011; Frenda, 2015).

이처럼 농촌의 주거안정과 빈곤 완화를 명목으로 상당수 오래된 야오둥이 철거나 개보수되는 한편으로 혁명유산이 된 일부 야오둥의 경우에는 농촌의 빈곤을 개선할 관광자원으로서 원형 복원을 통한 개발이 추진되었다. 주목할 점은 관광을 통한 농촌 빈곤의 해소와 도농간 균형 발전은 홍색관광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을 통한 애국주의의 함양이라는 홍색관광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에만 주목하지만, 홍색관광의 목적지인 홍색관광지가 대부분 빈곤한 농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홍색관광은 관광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와 관광지로서 촌락 경관 및 생태환경의 유지라는 생태적 기능도 가진다.

일례로 2016년 중국 정부는 〈빈곤 타파 강화를 통한 혁명 유적지 개발 건설에 대한 지도 의견(關於加大脫貧攻堅力度支持革命老區開發建設的指導意見)〉을 통해, 혁명 및 항일전쟁 지역을 의미하는 ‘혁명유적지(革命老區)’의 빈곤 타파를 위해 홍색관광지 개발 지원을 지시했다. 2018년에는 〈혁명문화유산의 보호와 이용프로젝트(2018~2022년)의 실시에 대한 의견(關於實施革命文物保護利用工程(2018—2022年)的意見)〉에서 “혁명문화유산의 보호와 이용, 초중등교육 및 간부 교육과의 연계, 빈곤 타파 정책과 연계, 농촌 진흥과 연계, 문화건설 및 관광발전과 결합, 경제사회 발전 및 민생복지 개선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혁명문화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부단히 증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혁명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농촌 빈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2013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강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한다. 중국이 아름다워지려면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중국이 부유하려면, 농민이 반드시 부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향촌진흥(鄉村振興)’이라는 명목 하에 농촌 개발 정책이 적극 추진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농촌美

麗鄉村』 프로젝트이다.¹²⁾ 이어서 2014년 농업부(農業部)는 아름다운 농촌 건설의 10대 모델¹³⁾을 발표하는데, 이는 농촌을 식량 생산 기능만이 아니라, 경관, 생태, 관광 등 다양한 기능과 활동의 장소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 정책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아름다운 중국 농촌 프로젝트는 농촌의 생태 및 경관 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지명도를 갖춘 농산품 브랜드의 개발이나 농촌 생태관광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촌의 빈곤을 해결하고 농민의 수입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농촌 개발 정책은 오늘날 중국에서 ‘농촌다움’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관념과 인식을 반영하는 다양한 재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정치적 학교로서의 야오둥

(상산하향으로) 15세에 황토지에 왔을 때, 나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22살에 황토지를 떠날 때 나는 이미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갖게 되었고 자신감에 넘쳤다. 인민을 위한 공복(公僕)이 되기 위해 산베이 고원은 나의 뿌리이다. 이곳에서 나는 변치 않는 신념을 키웠기 때문이다. ……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영원히 ‘황토지의 아들(黃土地的兒子)’이다.

(習近平, 2002:26)

도대체 왜 위대한 지도자가 홍위병 수백만 명을 궁벽한 시골로 보내 농민으로 살게 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젊은이들의 삶을 망쳐 버린 것인지 추측이라도 할 수 있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문화혁명 이후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은 결과 나타난 도시 젊은이들의 엄청난 실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물론 1968년 1월에 발표된 위대한 지도자의 지시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 그저 “모든 홍위병은 남은 평생 혁명적인 농민 틈에 섞여 살며 힘든 노동을 통해 붉은 군대의 기상을 배워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상원 역, 2006:115)¹⁴⁾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1969년 1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7년간 산시성 연안시 연환현(延川縣) 원안이진(文安驛鎮) 량자허촌(梁家河村)의 작은 야오둥에서 생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부친 시중순(習中勳)이 문

화대혁명으로 축출되자, 베이징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던 당시 16세의 시진핑은 1,700만 명에 달하는 도시의 ‘지식 청년(智識青年)’들과 마찬가지로 벽지의 농촌 마을에서 재교육 받기 위해 ‘상산하향(上山下鄉)’¹⁵⁾하게 된 것이다.

‘10년 동란(動亂)’이라고 불리며 중국 전체를 뒤흔든 문화대혁명(이후 ‘문혁’)은 아마도 현재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기억 중 하나일 것이다.¹⁶⁾ 중국에서 역사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문혁의 실제적 진실에 관해 오랜 침묵이 이어진 것과는 달리, 문혁의 기억과 관련한 문학적 서사나 미학적 재현은 상대적으로 풍성하다(성근제, 2014:64). 오늘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기억은 노스텔지어에서 트라우마에 이르는 역설적인 스펙트럼을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기를 그리워하는 이른바 ‘마오쩌둥뽀뽀(毛熱)’이 일고, 농촌에 하방되었던 과거 지식청년들의 기억은 이른바 ‘지청 노스텔지어’로 소비되는 한편, 베이징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문혁 당시의 복장이나 음식을 주제로 하는 테마 레스토랑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학이나 미술을 중심으로 문혁의 상처를 주제로 하는 ‘상흔예술(傷痕藝術)’이 등장하고, ‘정치적 팝아트(Political Pop)’¹⁷⁾로 불리는 현대미술 작품들은 문혁과 관련하여 높은 정치적 함의가 부여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한편, 폭력과 권위주의 등 문혁의 기억들을 비틀어 표현한 포스터, 배지,



그림 8. 마오쩌둥 어록, 홍위병 등 문혁도상을 모티브로 한 현대 미술과 기념품(상), 문혁 테마 레스토랑(하)
출처 : 2010년 저자 촬영(상); 2015년 저자 촬영(하).

의복 등 키치적 문화상품들이 활발하게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스텔지어와 트라우마는 언뜻 대립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문학과 관련하여 유행한 여러 현상들에서는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소설과 영화 등의 매체에서 문혁은 '가해자 홍위병과 피해자 지식인'의 대립적 구도로 재현되지만, 이러한 획일적 이분법으로는 문학과 관련한 중국인의 다양한 '집합적 기억(collected memories)'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비이성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힌 가해자 집단으로 묘사되는 홍위병들은 당시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으로, 문혁 초기 '조반(造反)'과 '무투(武鬥)'의 폭력적 상황을 겪거나 낯선 지역으로 하방되어 농노동과 굶주림 등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청년기의 대부분을 보낸 피해자이기도 하다.

문학과 관련한 개인의 경험담을 모은 평지차이(馮驥才)의 『백 사람의 십년(一百個人的十年)』(2016)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뒤얽힌 문혁의 기억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의 집합적 기억으로서 문혁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고통,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가해자의 죄책감, 집단주의의 광기 속에 놓인 개인의 무력감, 이데올로기적 열정에 바친 자신의 청춘에 대한 향수와 상실감 등이 뒤섞인 것이다.¹⁸⁾ 그러나 문혁이 종료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적 차원의 애도나 피해 규명은 진행되지 않은 반면, 문학·영화·미술 등에서는 노스텔지어와 트라우마가 뒤섞인 매우 선택적 방식으로 문혁의 기억이 재현되는 일이 급증했다.¹⁹⁾

시진핑 집권 이후 황토고원과 야오둥에 대한 사회문화적 재현에서도 문혁의 기억과 관련한 선택적 재구성이 확인된다. 흥미롭게도 시진핑이 상산하향으로 내려간 지역은 마오쩌둥의 혁명성지 옌안의 농촌 마을이었고, 7년간 생활한 곳 또한 흙으로 지은 야오둥이었다. 따라서 혁명원로의 아들로 베이징의 중심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16세의 시진핑이 7년간 황토고원의 야오둥 생활한 경험은 당시에는 혹독한 것이었지만,²⁰⁾ 이후 시진핑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거쳤어야 할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 지금까지 중국에서 문혁의 역사적·정치적 책임에 관해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

황에서, 시진핑의 7년간의 상산하향 시기는 문혁과 관련한 복잡한 기억의 재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하향된 황토고원의 농촌마을에서의 시진핑의 경험은 농민이 중심인 사회주의 중국의 핵심을 학습함으로써, 비로소 정치적·사상적으로 완전한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 성장기가, 황토고원과 야오둥은 이러한 서사의 중요한 배경이자 일종의 정치적 학교로 재현되었다.

시진핑의 고난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 빈곤한 농촌·농민의 현실을 몸소 겪으며 도시 출신이라는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이자,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농촌의 빈곤을 타파하고 농민을 계몽해가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학습의 과정으로 그려진다.²¹⁾ 이러한 고난의 서사와 이상화는 역설적이게도 옌안 시절의 마오쩌둥과 이상화된 농민을 주제로 하였던 수많은 과거의 도상과 겹쳐진다.

오늘날 시진핑 사상을 이해하는 데 황토고원, 야오둥, 옌안은 핵심어로 간주된다. 일례로 시진핑은 황토고원의 농촌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련되면서 벼룩, 거친 음식, 고된 노동, 사상이라는 '4개의 큰 관문(四大關)'을 넘어섰다고 회고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야오둥 안의 벼룩과 벌레들을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진핑은 여러 차례 황토고원의 농촌에서 보낸 7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 시기로 이야기하면서, 황토고원을 '인생학교'이자 자신의 정치적 '뿌리'라고 칭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은 영원히 '황토지의 아들(黃土地的兒子)'이라는 앞의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산베이(陝北) 고원은 나에게 신념을 주었고, 또한 나의 인생이 거쳐야 할 경로로 운명 지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산베이의 인생학교(人生課堂)를 거치고 난후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었고 그곳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었다. …… 옌안은 나의 기본 관념과 특징의 대부분이 형성된 곳이어서, 나는 나 자신을 마땅히 옌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69년 1월에 산시로 가서 75년 10월에 그곳을 떠났다.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을 형성한 시기이다. 산시가 뿌리(根)라면 옌안은 혼(魂)이다.

(陝西人民出版社編, 2018:37-39)

2015년 시진핑은 당총서기가 된 후 처음으로 부인 팡리위안(彭麗媛)과 함께 하방되었던 옌안의 량자허를 방



그림 9. 2015년 시진핑의 량자허 야오둥 방문
출처 : 陝西人民出版社 編, 2018:14.

문하는데, 당 선전부와 옌안의 지방정부가 시진핑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중국 내에 이른바 ‘량자허붐’이 일어났다. 시진핑이 황토평의 야오둥에서 생활한 7년의 기간을 다룬 기록문학, 다큐멘터리, TV드라마 등이 급증하고, 시진핑이 생활했던 량자허촌과 야오둥은 공산당 간부 및 청소년 애국주의 교육기지이자 중요한 흥색관광지로 부상한다.

2017년 중공중앙당교출판사(中共中央黨校出版社)는 베이징에서 온 지식청년 시진핑이 황토평의 농촌마을에서 농민들과 동고동락한 7년간을 기억하는 29명의 인터뷰를 모아 『시진핑의 7년 지청 세월(習近平的七年知青歲月)』을 펴냈는데 이는 일부 대학에서 필독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심지어 고된 농촌 생활에 지친 몸으로도 어두운 야오둥 안에서 독서를 멈추지 않았던 시진핑의 일화를 다룬 다큐프로그램 〈야오둥 안의 독서인(窯洞裏的讀書人)〉(2018)이 중국중앙텔레비전(中央電視臺, CCTV)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중앙방송총국(中央廣播電視總臺, China Media Group)의 ‘중국의 소리(中國之聲, Voice of China)’를 통해 시진핑의 상산하향기를 다룬 12편의 시리즈 다큐프로그램인 〈량자허(梁家河)〉가 방영되었다. 중앙방송총국은 2018년 기존의 3대 국영방송국인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CRI(China Radio International), CNR(China National Radio)을 통합해 만든 관영매체로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가 직접 관리한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를 모방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 매체는 공산당의 이론과 정책 등을 선전하고, 언론

보도와 방송 제작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자). 출범 이후 중앙방송총국은 시진핑 사상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중국 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진핑 사상의 기초가 형성된 ‘량자허정신(梁家河精神)’을 배우자는 열풍이 중국 내에서 불기도 했다(中國青年報, 2018년 1월 29일자). 주요 공공장소에 시진핑의 어록이나 초상화가 게시되고, 심지어 시진핑 사상과 량자허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이른바 ‘량자허대학문(梁家河大學文)’ 프로젝트가 추진되기에 이르렀다.²²⁾

트라우마 중심의 기존 문혁 재현과 달리 상산하향의 경험을 이처럼 이상화하며 회고하는 경향은 1990년대부터 등장한 이른바 ‘지청 노스텔지어’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개혁개방 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초래한 소외와 진정성 상실의 대응으로 허방을 경험한 일부 지청세대들에게서 나타난 일련의 회고적 경향을 일컫는다. 1990년대 말부터 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문학을 주제로 하는 대중음악과 기념품 등 각종 문화상품을 소비하거나, 농촌에서의 생활을 회고하는 여러 출판물이 발간되는 한편, 과거 허방되었던 농촌의 재방문 등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박충환, 2011:138). 특히 지청 노스텔지어에서는 문혁 당시 현실 농촌의 열악한 생활과 빈곤은 잊힌 반면, 가난했지만 평등했고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유지되었던 ‘이상화된 과거로서의 농촌’의 재현만이 남았다.

이러한 문혁의 선택적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이상화된 농촌으로의 재현 변화는 사과 재배와 돼지 사육에 의지하던 빈곤한 량자허촌을 중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농촌이자, 인기 있는 농촌관광지로 바꾸어 놓았다. 현재 량자허촌은 옌안시 농촌여행문화시범촌(鄉村旅游示範村)이자 아름다운농촌시범기지(美麗鄉村示範基地)이며, 당원간부당성교육기지(黨員幹部黨性教育基地)이다. 량자허 촌락의 역사를 전시하는 촌락역사관이 건설되는 한편, 농업 체험, 숙박 등이 결합된 일련의 ‘농촌관광(農家樂)’ 사업도 시작되었다.

물론 량자허촌의 핵심 관광지는 시진핑의 살았던 작은 야오둥이다. 2013년 옌안시에는 역사상 최대 폭우가 내려 산사태와 가옥붕괴, 도로유실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재해 속에서 시진핑의 옛집을 포함하여, 량자허에 남아있던 80%의 야오둥이 침수되고 일부 야오둥은 붕괴되었다. 지방정부는 량자허의 야오둥에 거주

하던 100여 가구를 평지로 이주시키고, 시진핑과 관련된 야오둥은 개보수를 거친 후 문혁 당시 지식청년의 삶을 체험하는 이른바 '지청문화체험관'으로 단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현재 인구 1,187명인 량자허촌에서는 촌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에 약 1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세한 사과 농사 등에 의존하던 량자허촌의 경제에서 관광은 이미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蘭金秋 等, 2019:60).

IV. 맺으며

국내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황토고원의 동굴집인 야오둥 경관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오늘날 중국의 변화된 조건 속에서 황토고원의 촌락 경관인 야오둥이 갖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재현이 만들어내는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황토고원의 야오둥의 경관을 재현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지역인 산시성 북부의 옌안은 사회주의 중국의 성립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장소로 오늘날 '혁명성지'로 불린다. 혁명성지 옌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관은 과거 공산당의 근거지로 사용되었던 야오둥으로 이들 야오둥 건축은 '혁명문화유산'으로 격상되었다. 혁명문화유산이 된 야오둥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를 선전하고 학습하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혁명 노스텔지어를 소비하는 인기 있는 홍색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 야오둥이 집중된 황토고원의 농촌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 빈곤 지역으로서, 오늘날 황토고원의 동굴집인 야오둥은 중국의 도농간 격차와 내륙 농촌 지역 빈곤을 상징하게 되었다. 일부 야오둥은 새로운 건축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재건축되거나,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형 복원되어 홍색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농촌의 주거안정과 빈곤 완화를 명목으로 상당수 야오둥이 철거 후 재개발되고 있다.

셋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는 황토고원과 야오둥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시진핑과 관련한 황토고원과 야오둥의 재현에서는 문화대혁명과 관련한 기억의 선택적 재구성이 확인된다. 시진핑이 문혁기 황토고원의 야오둥에서 보낸 7년의 세월

은 개인적 시련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치적 학교로 재현되며, 오늘날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공내전과 신중국의 성립,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와 이후 개혁개방의 대전환 속에서 황토고원의 동굴집은 생태주의 친환경 건축, 혁명문화유산, 농촌 빈곤의 상징, 정치적 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로 이해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재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농촌다움', 나아가 '중국다움'에 대한 집단적 인식과 관념을 바꿀 뿐 아니라, 빈곤해소 및 농촌개발, 애국주의 교육, 경관과 생태 보전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실천의 담론과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오늘날 중국의 '농촌다움'을 구성하는 상징과 이미지는 황토고원의 야오둥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민과 농촌 중심의 신중국 성립 때부터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의 완성은 중국 농촌의 빈곤 해결에 있다고 주창하는 현재 중국에 이르기까지 야오둥 경관은 오늘날 중국 농촌을 이해하는 데 핵심어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註

- 1)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섬서성(陝西省)과 산서성(山西省) 모두 '산시성'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주요 연구 지역인 옌안(延安)이 속한 陝西省의 경우 '산시성'으로, 山西省은 '산시성(山西省)'으로 표기하였다. 동경 105°29'~111°15'에서 북위 31°42'~39°35'에 자리하는 산시성은 동서가 좁고 남북으로 긴 형태로 총면적은 20.60만 km²이며 산시성(山西省), 후베이성(湖北省) 등 8개 성과 접하고 있다.
- 2) 홀로세 중반에는 황토고원을 포함한 북중국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보다 온난 다습했다. 황토고원 또한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소나무의 혼합림으로 덮여 있었으나, 신석기시대 초부터 화전 개발과 과도한 벌목으로 삼림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14세기 이후 가속화된 식생의 파괴로 침식 작용이 왕성해지면서 황토고원의 기복이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되었다(Leeming, 1985:147; Edmonds, 1994:27-

- 28; 최영준, 2003: 5-6에서 재인용).
- 3) 야오둥은 벽돌이나 돌 등 사용되는 건축 재료나 동굴형과 단독형의 결합 양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하다(Yoon, 1990:98-99).
 - 4) 황토고원은 대부분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야오둥의 붕괴는 강우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1556년 1월 23일 발생한 산시대지진(陝西大地震) 때 산시성을 비롯하여, 산시(山西), 허난, 간수,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수(江蘇), 안후이(安徽) 성의 90개현에서 야오둥의 붕괴로 8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nda, 2015:904). 지진뿐 아니라 비가 스며들거나 쥐나 뱀이 낸 구멍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야오둥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공산화 이후인 1964-1979년 간수성 톈수이현(天水縣)에서만 17,500여 채의 야오둥이 붕괴되어 1,140명이 사망하였다(최영준, 2003:7).
 - 5) 윤희기(2011)는 황토고원에서 풍수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중앙을 뜻하는 황색과 토(土)가 황토고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풍수의 기본 산형(山形) 중에 토산(土山)이 황토고원의 형태와 닮은 급경사인 산록과 산정(山頂)을 가진 모습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윤희기, 2011: 60-63).
 - 6) 대부분 건조, 반건조 기후인 황토고원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오둥에서는 마당에 침출구를 뚫어 지하에 빗물을 모아 사용한다. 지하 수조는 직경 50~60m로 구멍이 뚫린 돌로 덮여 있는데, 깊이가 5~8m에 달해 20~30m³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야오둥에 상수도가 건설된 후에도 주민들은 이 물을 작물이나 화장실 청소 등에 사용한다(Liu et al., 2011:8531).
 - 7) 중국에서는 야오둥의 분포 지역을 건축양식과 구조적 특징에 따라 주로 간쑤성동부[隴東], 산시성북부[陝北], 산시성(山西省)동남부[晉中南], 허난성서부[豫西] 등 4개 지구로 구분하거나, 허난성과 허베이성북부[冀北]과 닝샤를 포함한 6개로 구분하는데, 때로는 내몽고와 신강(新疆) 지역을 추가하기도 한다(최영준, 2003:8).
 - 8) 중국에서 '홍색관광[紅色旅遊]'이라는 용어는 2000년 장시성(江西省)에서 난창(南昌)-징강산(井岡山)-루이진(瑞金) 등에 있는 사회주의 혁명유적지를 경유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이 잇달아 홍색관광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劉海洋明鏡, 2012:61).
 - 9) 1940년 마오쩌둥이 옌안의 중앙당교에서 발언한 것으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옌안의 야오둥은 가장 혁명적이며, 옌안의 야오둥에는 맑스레닌 주의가 있다. 옌안의 야오둥에서는 전국적인 항일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郭苗苗楊博宇, 2019:46).
 - 10) 이 글은 1969년 시진핑과 함께 옌안의 생산대로 상산하향했던 레이룽성(雷榕生)의 인터뷰 기록이다(中央黨校採訪實錄編輯室, 2017:11).
 - 11) '정준부빈'이란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을 의미하는 말로, 2013년 시진핑이 대표적 빈곤지역인 후난성(湖南省) 상시(湘西)지역을 시찰한 후 "實事求是, 因地制宜, 分類指導, 精準扶貧"를 언급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빈곤지원책이다.
 - 12) 이 계획은 처음 2008년 저장성(浙江省) 안지현(安吉縣)에서 제출되어 성공을 거두면서 이후 국가적으로 확대되었다.
 - 13) 10대 모델은 1)산업발전형, 2)생태보호형, 3)농업집약형, 4)사회융합형, 5)문화전승형, 6)어업개발형, 7)초원목장형, 8)환경개선형, 9)레저관광형, 10)고효율농업형 등이다.
 - 14) 현재 미국의 Rochester Community and Technical College에 교수로 있는 선판(沈汎)은 2006년 문화대혁명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인 *Gang of One: Memoirs of a Red Guard*을 영문으로 발표했는데, 1969~1972년까지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에서 산시성으로 상산하향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 15) 문혁 이전인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중국 공산당은 도시 실업을 완화를 위해 도시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추진했다. 그러나 문혁 당시 '도시의 지식청년은 농촌으로 가서 재교육을 받으라'는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대략 1,700만 명의 청년들이 농촌과 변경 지역으로 향하는 상산하향에 참여했다. 상산하향은 농장이나 생산대(生產隊)에 들어가는 방식[插隊]으로 이뤄졌는데, 시진핑 또한 량자허촌의 생산대에 합류하여 7년간 생활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실업 등 도시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면, 이데올로기에 기댄 정치적 동원이나 도시-농촌간

이원화된 대립적 체제를 활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농촌으로 전가하는 해결책이 이용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산하향이었다(조형진 역, 2020:39).

- 16) 최근에도 중국의 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문혁을 “심각한 재난”을 야기한 “오류”이며, “어떠한 점에서도 혁명이나 사회적 진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술하면서, 다시 한 번 논쟁이 일기도 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On September 6th, 2020).
- 17) 정치적 팝아트는 이른바 ‘문혁도상(文革圖像)’이라 불리는 마오쩌둥의 초상이나 마오쩌둥 어록과 혁명구호, 홍위병 등을 주제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중국 현대미술과 문혁과의 관련성은 다음의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안영은·이정은, 2008; 김문정, 2011; 이영일, 2013).
- 18) “내가 겪었던, 지식 청년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솔직히 말해 모두들 양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번 삶에서는 이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지식청년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 그들은 모두 문혁이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사람들이라 여러 방면에 두루 재주가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모든 지식청년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 감당했던 것들입니다.”(박현숙 역, 2016:88-89).
- 19) “문혁이 끝나자, 누구도 그 시절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박현숙 역, 2016:293). “독재자를 탓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에서 더는 문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혁명모범가극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마오주석을 신처럼 모시는 현상을 보면서 말이죠.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혁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박현숙 역, 2016:309).
- 20) 시진핑은 가난과 굶주림, 중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처음 농촌에 내려온 지 3개월 만에 베이징으로 도망쳤으나, 이후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시 농촌 하방을 신청하고 7년간 생활하였다(박경철, 2019:97).
- 21) 우리가 하향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시진핑은 자신을 “보통 농민”이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농민

사상에 갖게 된 감정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자신을 “지식청년”이 아니라, “보통 농민”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가 이미 완전히 농민 속에 융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농민을 알고, 농민을 아꼈어요.(中央黨校採訪實錄編輯室, 2017:31).

- 22) 개인승배에 가까웠던 량자허 열풍은 상하이에서 독재를 반대한다며 시진핑의 초상화에 먹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잦아들게 된다(연합뉴스, 2018년 7월 17일자).

참고문헌

- 관상철·박경환·부혜진·전중환·정희신·조아라 역, 2014, 「현대 촌락지리학: 촌락 재구조화의 과정, 반응, 경험, 서울: 시그마프레스(Woods, M., 2005, *Rural Geography: Processes, Responses and Experiences in Rural Restructuring*, London: Sage).
- 김도경, 2017, “시진핑(習近平) 시기: ‘정준부빈(精準扶貧)’의 현황과 문제” *현대중국연구*, 19(3), 239-267.
- 김문정, 2011, “중국현대미술에서 우상과 트라우마의 문제 - 냉소적 사실주의 작가 위에민권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8, 679-698.
- 김준영, 2017, “블로그의 미시담론으로 고찰한 광장의 의미 해석 연구: 전주시 풍남문광장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1), 51-62.
- 박경철, 2019,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과 발전: 탈빈곤에서 생태문명 건설까지” *중국지식네트워크*, 13, 91-126.
- 박경철·허남혁·강미야·김중수·김찬규·송주연·장효안·최민영 역, 2016, 「농촌: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서울: 따버(Woods, M., 2011, *Rural: Key Ideas in Geography*, London: Routledge).
- 박경환, 2020, “촌락 공간을 둘러싼 재현과 담론의 특징 - 전라남도 담양군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32(1), 164-190.
- 박충선·윤순옥·황상일, 2007, “한국 뾰스 연구의 성과 및 논의” *한국지형학회지*, 14(4), 29-45.
- 박충환, 2011,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혁개방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기” *현대중국연구*, 13(1), 117-157.
- 박현숙 역, 2016, 「백 사람의 십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그 집단 열정의 부조리에 대한 증언, 서울: 후마니타스(馮驥才, 2004, 「一百個人的十年」, 長春: 時代文藝出

- 版社).
- 성근재, 2014, “문화대혁명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중어중문학*, 57, 61-89.
- 손명원, 2005, “실크로드의 자연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29-39.
- 손세관, 2001,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중국의 주거문화(하)」, 서울: 열화당.
- 안영은·이정은, 2008, “중국 팝아트의 생성과 발전 -‘정치적 팝아트(Political Pop)’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6, 379-406.
- 윤홍기, 2011, 「땅의 마음: 풍수 사상 속에서 읽어 내는 한국인의 지오멘탈리티」, 서울: 사이언스북스
- 이강원, 2003, 「톱노르 論爭과 신장 生産建設兵團 -中國西北地域沙漠化的 社會的過程」, *대한지리학회지*, 38(5), 701-724.
- 이상원 역, 2014, 「홍위병」, 서울: 황소자리(Shen, F., 2004, *Gang of One-Memoirs of a Red Guard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이영일, 2013, “도상과 형상: 중국현대미술에서 문혁의 도상 이미지 연구,” *미술이론과 현장*, 16, 225-256.
- 이영일, 2020, “라캉의 “실재” 개념으로 읽는 중국 근현대미술의 단면 -농민·농민공형상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1(1), 399-418.
- 이현석 역, 2013, 「시골과 도시」, 파주: 나남(Williams, R., 1973, *The Country and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조성욱, 2020, “십승지에 대한 의미 변화와 변산 십승지의 위치 추정,” *한국지리학회지*, 9(2), 325-339.
- 조형진 역, 2020, 「삼농과 삼치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 과찬: 진인진(溫鐵軍·楊帥, 2016, 「三農與三治」,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최영준, 2003, “중국 황토고원의 요동민거,” *문화역사지리*, 15(1), 1-30.
- 최원희, 2016,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5(2), 155-180.
- 한지은, 2010,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문화역사지리*, 22(1), 97-114.
- 한지은, 2013, “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인과박*, 34, 126-146.
- 한지은, 2015, “전장에서 관광지로-동아시아의 기억산업” *문화역사지리*, 27(2), 55-78.
- 郭苗苗·楊博宇, 2019, “基於文化價值保護視覺下的宅基地使用權流轉問題研究,” *鄉村科技*, 6, 46-47.
- 蘭金秋·於立新·王會戰, 2019, “革命老區旅遊精準扶貧制度增權的比較研究,” *旅遊導刊*, 3, 57-70.
- 白虹, 2011, “陝北窯洞的符號學解讀” *紅河學院學報*, 9(3), 87-89.
- 陝西人民出版社 編, 2018, 「梁家河」,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 習近平, 2002, “我是黃土地的兒子,” *全國新書目*, 第12期, 26.
- 鈴木喜, 1999, 「中國民家探訪事典」, 東京: 東京堂
- 王瑩瑩, 2019, “探訪延安精神及期時代價值,” *科技風*, 8, 237.
- 牛世紅, 2015, “城市變遷中延安窯洞的文化傳承及保護” *沿海企業與科技*, 6, 64-66.
- 劉海洋·明鏡, 2012, “國內紅色旅遊研究進展與評述” *旅遊研究*, 4(3), 60-65.
- 林文 主編, 2014, 「窯洞軼事」,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
- 中央黨校對黨方實錄編輯室, 2017, 「習近平的七年知青歲月」,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陳正祥, 1985, 「中國文化地理」, 臺北: 木鐸出版社.
- 鄒躍進, 2012, 「立場: 鄒躍進美術理論與批評文集」,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 向遠林·曹明明·瞿洲燕·易純, 2019, “陝西窯洞傳統村落景觀基因組圖譜構建及特徵分析,” *人文地理*, 34(6), 82-90.
- Duncan, J.,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Kandyan Kingdo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monds, R.L., 1994, *Patterns of China's Lost Harmony*, London: Routledge.
- Frenda, A., 2015, Th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of yaodong settlement in the Loess Plateau (PRC). A dynamic conservation approach for a sustainable landscape development and planning. *Energy Proceda*, 74, 900-908.
- Fuller, M.L. and Clapp, F.G., 1924, Loess and rock dwellings of Shensi, China, *Geographical Review*, 14(2), 215-226.
- Knapp, R.G., 2000, *China's Old Dwelling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eeming, F., 1985, *Rural China Today*, London: Longman.
- Li, Y., Hu, Z.Y., and Zhang, C.Z., 2010, Red tourism:

- Sustaining communist identity in a rapidly changing China,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8(1-2), 101-119.
- Lin, C., 2015, Red tourism: Rethinking propaganda as a social space,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12(3), 328-346.
- Liu, J., Liu, J., and Liu, Y., 2011, Study of ecological values of Chinese traditional cave dwellings on loess plateau,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mote Sens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June 24-26, Nanjing, China, 8530-8532.
- Liu, T.S., 1985, *Loess in China*, Beijing: China Ocean Press.
- Richthofen, F.F., 1877, *China: Ergebnisse eigener Reisen un darauf gegründeter Studien*, Berlin: D. Rimer.
- Sauer, C.,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19-53.
- Yoon, H.-K., 1990, Loess cave-dwellings in Shaanxi province, China, *GeoJournal*, 21(1/2), 95-102.
- 國家文物局, 2016年 7月 1日字, “關於加強革命文物工作的通知”
- 國務院, 1994年 4月 15日字, “國家八七扶貧攻堅計劃”
-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辦公廳, 2016年 2月 2日字, “關於加大脫貧攻堅力度支持革命老區開發建設的指導意見”
-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辦公廳, 2018年 7月 30日字, “關於實施革命文物保護利用工程(2018—2022年)的意見”
- 연합뉴스, 2018년 7월 17일자, “시진핑 초상화 간판에 먹물 끼얹은 여성 구속된 듯”
- 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자, “시진핑 사상 알린다… 中관영 매체 통합 ‘중국의 소리’ 출범”
- 新良(Sina News), 2013年 12月 6日字, “中疏外擴 上山建城 幸福延安”
- 人民網, 2015年 7月 22日字, “青年志愛國情 感悟梁家河”
- 人民網, 2015年 10月 16日字, “習近平回憶16歲在陝北當農民:農村的貧困給我留下刻骨銘心的記憶”
- 中國青年報, 2018年 1月 29日字, “梁家河爲什麼這麼火”
- 中國新聞社, 2018年 2月 17日字, “陝北窯洞里的最後一個春節:難忘黃土地,期待新生活”
- South China Morning Post, On September 6th, 2020, “New Chinese textbook that says Cultural Revolution brought ‘disaster’ on country stirs debate about historical memory”
- 前瞻產業研究院, “巔年中國紅色旅遊行業市場現狀及發展前景分析預測2020年旅遊收入將近4,000億”, <https://bg.qianzhan.com/trends/detail/506/191106-96860b16.html>(2020년 10월 16일 최종 접속)
- Wikipedia, “Shaanxi”, <https://en.wikipedia.org/wiki/Shaanxi> (2020년 12월 5일 최종 접속)
- 교신 : 한지은,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innyhan@knue.ac.kr)
- Correspondence : Ji-Eun Han, 28173,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Seco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jinnyhan@knue.ac.kr)

투고접수일: 2020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3일

